

땅끝의 아이들

(이민아 지음. 열림원)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세상에 고난을 반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더욱이 연속적으로 오는 습성을 지닌 그 쓰나미같은 고난 앞에서 버텨낼 장사는
 하물며 얼마나 될까?
 고난가운데서 좌절하고 낙망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땅끝의 아이들’에는 그렇게 고난가운데서 발버둥치다 이를 신앙으로 초극하고
 승화시켜나간 한 사람의 소중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일부러 감동을 주거나 가슴을 후비려 들진 않지만 작가 스스로가 느낀 아픔과 감
 동이 생생하게 전해지며 마치 손가락을 칼에 베인듯한 아린 느낌을 내내 갖지 않
 을 수 없게 한다.

이름만으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모(이어령-강인숙) 밑에서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살아온 거짓과 위선, 그리고 공허함. 그 굴레에서의 일탈을 꿈꾸며 시도한
 결혼과 실패, 재혼, 아들의 방황과 죽음, 암 발생과 수술, 재발, 시력상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의 자폐...

그렇게 주체할 수 없이 다가온 고통의 거친 파도 속에서 그녀는 몸서리치다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따지고, 울부짖으며 구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참 진리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자신을 지배하는 환경과 조건과 형편에 휘둘리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세워나간다.
 오히려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경험을 신앙의 질료로 삼아 땅끝의 아이들을 치유하는 사역에 나선다.
 땅끝의 아이들, 그건 작가 자신이었고 아버지였고 마르다였고 베드로였다.
 아니 그건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모두였다.

책을 읽는 내내 그녀가 곁에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담담하게 회상하며 읊조리는 듯한 그녀의 구어체적 고백은 독자를 곁에 붙들어놓는 묘한 마력이 있다.
 그녀는 내 어머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누이이기도 했다.
 때문에 시리디 시린 가슴에서 토해내는 그녀의 한 마디 마디는 비바람에 떨어지는 꽃잎처럼 처절하게 가슴을 파고 들어온다.

연약하면서도 강하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면서도 뛰어나고, 쓰러지면서도 일어나는, 어떤 믿음의 선진들 못지 않게 뛰어난 승리
 자의 모습을 그녀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늘 누군가가 안아주기를 바라던 그녀는 지금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빨리 안아주시려 그녀의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서둘러 데려가셨나 보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녀의 인생은 불행과 실패와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녀는 승리자요, 믿음의 모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가? 꼭 그녀를 만나보라. 단언컨대, 분명 그녀가 위로와 소망을 줄 것이다.

사족. 일반적인 글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직접화법, 대화체 어투가 다소 거부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조근조근 얘기해주는 그녀의
 화법가운데 빨려 들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감동에 젖어 들게 될 것이다. 다만 20쇄를 찍을 정도로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
 른 책이라곤 믿어지지 않게 오자가 많은 게 옥에 티. 그레이스 북카페에 가면 지금 만날 수 있다. [김영규]